

제과인의 힘으로 세운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

73년 1회 입학생이후 23회 졸업생 배출



▲ 역사적인 제1회 입학식, 식사를 하고 있는 황장릉 교장.

◀ 훌륭한 제과 기술인이 될 것을 다짐하며 '과업인의 선서'를 하는 입학생들.

〈사진제공/홍행홍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교장〉

따라서 학교 설립은 과자회관 매각액에 앞서와 같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독지회원들이 매월 50만원씩 조성한 기금 2,300만원, 전국 제과점의 1일 매장 쾌척 운동을 벌여 모금한 약 800만원을 투입해 역사적인 학교 설립을 보게 되었다.

학교 설립과 동시 교사(教師)확보는 명문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미국 AIB에 파견,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인원을 강사진으로 구성, 운영했다. 당시 이들은 제과교육 커리큘럼과 교육지침 등을 직접 만들어 교육체계를 확립하기도 했다. 이때 만든 커리큘럼이 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었고 올해로써 23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한편 기존 기술인 교육과정인 연수반도 108기를 배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과인의 선견지명이 빛을 발하여 이루어진 역사적인 학교 설립. 그것은 바로 우리 업계의 저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나타낸 표상이었다. ☐

사진을 찾습니다
갖고 있는 사진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있으면 본지 '추억의 사진' 담당자 앞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엽서에 연락처를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1973년 3월 12일, 이날은 우리나라 제과업계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깊은 날이었다. 바로 한국제과고등기술학교가 영등포 신길동에 교사(校舍)를 마련함과 아울러 최초로 50명의 신입생을 받은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제과학교 설립은 당시 대한제과협회 회장이었던 조승환 회장을 비롯한 신창근(당시 태극당 대표), 김봉룡(당시 뉴욕제과 대표), 선호석(풍년제과 대표), 박노필(부산 뉴욕제과 대표)씨 등 임원진과 독지(篤志) 회원 27명이 발기인이 되어 67년부터 매월 50만원씩 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서 본격화됐던 것.

낙후돼 있던 제과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선각자적인 의지로 제과학교 설립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조승환 회장과 임원진들은 학교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우선 회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바로 충무로 2가 18번지 6층 건물을 매입하고 1968년 가을에 협회가 이 건물에 입주하기에 이르렀다.

과자회관이라 명명하게 된 이 건물은 업계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곳에 세미나장도 만들어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유명 일급 기술자를 초빙, 수준 높은 기술을 보급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등 구심체가 되기도 했다.

한편 27명이 조성한 기금 일부로 잠시도 늦추지 않고 지속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제과학교 설립은 72년 3월에 이르러서 대한제과협회 명의로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법규로 인하여 부득이 협회는 1972년 5월 12일 과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재단 과우학원을 설립하는 한편 동 재단에서 설립을 추진키로 결의를 모았던 것이다.